

壬辰錄 天命觀의 性格과 機能

辛 泰 洙

차 례

- | | |
|------------------------------|-----------|
| 1. 天意, 天數, 天時, 天命, 天道로서의 天命觀 | 4. 叙事的 機能 |
| 2. 樣相과 性格 | 5. 結 論 |
| 3. 展開方向 | |

1. 天意, 天數, 天時, 天命, 天道로서의 天命觀

임진록의 여러 이본에는 天意, 天數, 天時, 天命, 天道라는 낱말이 많이 나타난다. 낱말이 다양해서 그 뜻도 각기 다를 법하지만 天이라는 음절이 낱말의 뜻을 한정하는 한 그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런 낱말을 쓰는 등장인물의 신분을 보면 하층출신에서 임금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이런 낱말이 실린 경우를 찾자면 거의 모든 이본이 대상이 되고 있다.

신분귀천의 구분없이 예사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라면 '常套語'라고 할 수 있다. 임진록에서 거듭 쓰이는 낱말이 상투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상투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예사롭게 하는 말이란 별 다른 무게를 지니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진록에서 예사롭게 쓰이는 말은 경우에 따라 그 무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에서 선택된

1) 정인승 외 7인편, 「한국어대사전」, (韓國辭典編纂會, 1976), 878쪽 참조.

특정 어휘나 낱말이 거듭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그 무게가 일정하지 않을 터이고,²⁾ 설사 작가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작품의 구조나 의미 지향과 연결되어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작가의 의도야 어떠한 연구 대상이 작품이고 보면 모든 문제는 작품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왕의 연구에서는天和 결합된 이런 낱말을 작품과 분리시킨 채 단순한 상투어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게나 의미가 드러나지 못했다.

天에 대한 의미는 역사적으로 사상의 발전과 함께 변천해 왔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 대체로 形體的인 天과 主宰的인 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³⁾ 하늘이라고 할 때는 形體的인 天을,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主宰的인 天을 가르키는 수가 많다. 샤머니즘이 생활의 원리를 이루던 시대에는 양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나 중국 문화의 유입과 함께 들어온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그 의미에 분화가 일어났다. 形體的인 天은 천문, 역법 등으로 매겨지고, 主宰的인 天은 정치사상으로 이어져서 치국 원리를 형성하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⁴⁾ 임진록에는 전적으로 후자 쪽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天이 정치적 의미를 띠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예로부터 집단을 다스리는 자는 天의 명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은 것처럼 되어야 했다.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여러 건국신화에는 하늘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궁극적으로 통치자가 天命을 받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통치자가 天命을 등에 업고 백성을 다스리되 기본적인 자세가 옳바르지 못할 때는 권좌를 오래도록 누릴 수가 없다. 만

2) Louis O. Mink, History and fiction as modes of comprehension, 「New direction in literary hist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794), 120쪽에서는 작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이유는 독자에게 흥미를 부여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3) 朴晟義, 敬天思想과 國文學, 「韓國文學背景研究」上, (二友出版社, 1975), 353쪽 참조.

4) 金駿謙, 古代人の 하늘觀, 「无涯梁柱東博士古稀紀念論文集」, (无涯先生古稀紀念論叢刊行會, 1973) 433~435쪽 참조.

약 군주가 포악해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天命이 끊어지고 천벌을 받는 상황이 일어난다. 武王이 紂王을 치고 湯王이 桀王을 친 사태는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⁵⁾ 임진록에서도 天이 나라의 운명, 전투 상황을 암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 전승자들이 통치자와 天命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헤치고자 했을 법이다. 그런데 天命을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것이 논란거리이다. 조선의 상충인과 하충인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천명을 받은 주체가 분명한 武王과 湯王의 경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괴묘년의 니르려는 태백성이 주로 뵈고 백홍이 주로 희를 켜니 지식 잇는 지 가장 근심하더니 경진년의 니르려는 경상도 단성고를 잇는 희음강이 절노 마르고 동희서 나는 고기 서희로 모히고 연평바다히서 나는 청어가 요동서 잡힌다 흑야 소설이 조조하더니 임오년의 다드라 범이 평양성둥의 드러와 사툼을 무수히 상해오고 대동강이 흑 마르여 흑 피빛갓하여 칠일을 두고 서로 돌려 두 빗치 되고⁶⁾

임진록 서두에 나오는 천재지변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 조선의 지배층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전란의 징후를 예시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야만 天이 조선의 편에 있고 임금은 천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홍이 해를 꿰고 동해의 고기가 서해로 모이고 대동강이 피빛 같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상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는 입장에 서면 천명을 거스리는 나라에 대한 징벌로 볼 여지도 생긴다. 천명에 대한 견해가 각기 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쪽이 타당한지를 식별하기가 용이치 않다. 사정이야 어쨌든 전란의 중심무대가 조선이고 수많은 백성이 도륙당한 처지이고 보면 가장 어려운 입장에 놓인 쪽은 조선의 임금이다. 왜군이 천명을 받아 왔다고 하며 승

5) 「書經」에 실린 泰誓上 “商罪貫盈 天命誅之 予弗順天 厥罪惟鈞”, 湯書 “格爾衆庶 悉聽朕言 非台小子 敢行稱亂 有夏多罪 天命殛之” 참고.

6) 임진록 「승실대본」, 7-8쪽.

승장구하고 있으니 조선의 임금은 天의 징벌을 받는 셈이 되고 말았다.

조선의 임금이 끝없는 몽진의 길을 떠나고 강토가 왜적의 수중에 거의 들어갔지만, 저층에서 일어난 인물들이 활약하면서 天意를 되돌려 놓았다. 전란 초창기에는 아군이 거듭 밀리다가 저층의 장수들이 가세함으로써 도리어 일본 본토를 응징⁷⁾ 하기까지 했기에 天意가 조선의 편에 있는 것을 밝힌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수만은 없다. 상층인의 전용 어구이다시피 한 天意, 天數, 天時, 天命, 天道를 하층의 장수가 그대로 사용한 데서 치세원리의 순수성이 훼손되었고, 天意가 임금이 아닌 하층인에 의해 밝혀진 것은 왜침 이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임진록에서 예사롭게 쓰이는 이런 낱말이 경우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주된 요인은 상층과 하층이라는 층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필자는 天이라는 음절로 묶여진 天意, 天數, 天時, 天命, 天道는 天의 命을 해석하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 여겨, 이런 시각을 天命觀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임진록에 나타난 天命觀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 전개방향을 살펴본 다음 기능적인 측면에서 天命觀의 의의를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거의 모든 이본에 天命觀이 담겨 있지만 비교적 빈도가 많고 그 비중이 크다고 생각되는 이본 9편을 대상으로 삼는다. 자료로 삼는 임진록 이본들은 다음과 같다.

-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3장(이하 국본으로 약칭함)
- 2) 박순호 소장본, 50장(이하 박본으로 약칭함)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116장(이하 정본 1로 약칭함)
-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65장(이하 정본 2로 약칭함)
-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70장(이하 정본 3으로 약칭함)
- 6) 경판본, 74장(이하 경본으로 약칭함)
- 7)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 65장(이하 북본으로 약칭함)

7)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 본토원정이 두 차례 이루어진다. 1차는 김응서, 강홍립에 의해서, 2차는 사명당에 의해서인데, 김응서와 강홍립이 自中之亂으로 실패하게 되자 사명당이 출전하여 도술로써 왜왕의 항복을 받아온다.

- 8) 나손 김동욱 소장본, 43장(이하 나본으로 약칭함)
- 9) 백면 김광순 소장본, 44장(이하 백본으로 약칭함)

2. 樣相과 性格

천명관은 구체적인 낱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행동이나 분위기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상층인이나 하층인이나 나름대로 천명관을 내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왜장들까지 천명관을 표출하기 때문에 임진록에는 천명관이 철저하게 반영된 동시에 온통 형클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족하다. 정작 천명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천명관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므로 천명관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천명관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개성이 특히 강한 인물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평의지 조선에 탐지홀 켜에 강원도서 토정선심이 맛나보미 왜장인 줄 알고 죽이려 혼죽 평의지 복지이결하니 토정이 갈를 낫고 더미왈 너 너를 죽일 거시로디 이 조흔 천슈라 너갓튼 것 죽여 무익하니 다만 너두에 삼척 근처에 왔다가는 편갑도 남지 못하리라 하고 노흔고로 잇췌 삼척이 홀노 병화를 면하니라 (경본, 25쪽)

2) 정충남이 진문을 커게 열고 웨여 왈 적장은 드르라 너 웃지 천시를 모로고 강포만 밋고 조선을 침범하니 상이 날노 하여금 네희 췌무리을 멸하라 하시디 영을 bat와나니 bat비 칼을 바드라 (박본, 14쪽)

3) 덕영이 답왈 나논 조선국 조고만흔 사람이라 너논 무도흔 도적으로 천기를 아지 못하고 범남한 섌들 가져 조선을 침노하니 너 너희 진중의 와 네 머리를 버허가리라 (북본, 41쪽)

4) 나논 이 나라 제주섬의 잇는 강홍립이라 네 왕이 무도하야 천의를 모로고 외람흔 섌썬 두워 네갓탄 아히을 보니어 우리 조선을 침범하야 하날이 엇지 무심하리요 너 철이 박기 잇고 섌 더강이 톱킨고로 네 목심을 죽금가지 사라씨어 너 이제 혼 칼의 너의 목심을 함몰하고 (정본1, 156쪽)

5) 조선 병화는 천슈라 소신이 나가와도 별노 유익함이 이 업슬덜하오

6 嶺南語文學(第19輯)

이다 (북본, 19쪽) 네놈은 천의를 모르고 외람흔 뜻을 두어 도선갓튼 예의 지국을 침노한다 도선의 영웅호걸리 구름 모이듯 하여 너의 덕장 천정과 소섭 평숙일 등이 칼 아리 혼탁이 되어거든 너의 놈은 방자히 두렵지도 아니훈야 (나본, 48쪽)

1)은 토정, 2)는 정충남, 3)은 김덕령, 4)는 강홍립, 5)는 이여송⁸⁾이 한 말인데, 각기 “천슈”, “천시”, “천괴”, “천의”라고 하며 천명관을 드러내고 있다.⁹⁾ 토정은 초야에 있지만 학식이 많고 대단한 도력까지 갖추었다. 그래서 “지용을 검비훈”(경본, 5쪽) 장수인데다 변복을 능란하게 하는 평의지를 한눈에 찻자인 줄 알아보고 사로잡을 수 있었다. 정충남 또한 宣傳官¹⁰⁾이라는 직책에 있었다 하니 그 용력이나 지략이 과인함을 미루어 볼 수 있다. 宣傳官에 걸맞게 임금의 말을 천명으로 받들고 왜장들을 “취무리”로 몰아세우는 기풍이 돋보인다. 김덕령과 강홍립은 한결같이 초야에서 농사를 짓다가 전란에 참여한 인물이다. 무식하지만 대단한 능력을 지녔기에 자기 나름대로 천기, 천의를 부르짖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이여송은 원병장으로서 탁월한 용력을 지녔고 김응서 강홍립 등의 장수를 適所에 발탁하여 천명관이 강력하게 지속되도록 기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1)~5)에서 제시된 인물은 그 능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지만, 각기 처한 입장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천명관이 같지는 않다.

8) 異本에 따라 인물명이 다소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편의상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다.

9) 토정, 정충남, 강홍립, 이여송은 어느 이본에나 신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天命觀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덕령은 이본에 따라 상충이거나 하충인이거나 하여 天命觀도 일정하지가 않다. 여기서는 김덕령의 신분이 하충으로 나타나는 이본만이 논의의 대상이다.

10) 李朝時代의 官職으로서 宣傳官廳에 속한다. 이조 초기에 설치되어 形名, 啓牒, 侍衛, 傳令, 符信의 出納 등을 관장했다. 처음에는 8명의 인원이 있다가 후에 76명으로 늘어났는데, 官等은 정3품에서 종9품에까지 이른다. 李弘植編, 『國史大事典』(三榮出版社, 1984), 732쪽. 임진록에서 정충남이 임금의 側臣인 점으로 보아 官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토정은 조선의 전란이 “천슈”이기에 왜장 평의지 한 명 정도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평의지를 그대로 살펴보내되 후일 삼척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평의지가 군병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을 때 삼척만이 병화를 입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토정의 공로가 지대한 것은 틀림없으나 자기 가족이 있는 곳만 지킨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만약 왜침을 천수라 하지 않고 왜침에 대한 방어를 천수라고 여겼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토정의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삼척뿐만 아니라 여러 고장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위기를 보다 빨리 종식시킬 법도 하다. 왜침만을 천수라고 한 토정의 천명관은 이 점에서 소극적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충남은 토정과 달리 왜침에 대한 방어를 “천시”라고 여겼는데도 敗死한 사람이다. 왜적에 대한 방어를 단순히 천시라고 해서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방어하는 쪽에서 천시라고 한다면 쳐들어오는 쪽에서도 천시라고 할 수 있으니 힘이 따르지 않으면 천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정충남은 방어할 수 있는 힘보다 방어하려는 생각이 앞서고 있다. 大殿에서 신입이 패했다는 장계를 접하고 “뉘 능히 디적ᄃᆡ리오 안으로 용장읍고 박그로 적세 급ᄃᆡ니 뇌라셔 도적을 함몰ᄃᆡ고 종피사적과 도탄의 든 빅성을 구ᄃᆡ여 짐의 근심을 읍게 ᄃᆡ리오”(나본, 10쪽)라는 임금의 한탄을 듣는다. 내세울 만한 장수는 동래, 충주 등지에서 이미 敗死하고 말았으니 안으로 용장이 없다는 임금의 한탄은 꽤 객관적인 시각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처지에서 정충남이 출전을 한 것은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라기보다는 “비록 적조업”(국본, 15쪽)는 사람이라도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연유된 것이다. 방어하는 것을 천시라 여기기에 토정과는 달리 이기심은 없으나, 단지 사명감에 이끌려 출전하기에 천명관이 적극적이기는 어렵다.

토정, 정충남이 소극적인 천명관을 지닌 데 비해 김덕령, 강홍립은 적극적인 천명관을 지닌 인물이다. 김덕령, 강홍립은 임금이 불러서 나아간 것이 아니요 단지 사명감만으로 출전한 것도 아니다. 이름있는 장수들이

쓰러지고 강토가 왜군들에게 유린당하자 분노를 참을 길 없어 싸움에 나섰다.¹¹⁾ 김덕령은 父喪을 입은 데다 “임군의 명초업시 전장의 나어가 도로혀 히를 당”(정본1,147쪽)할지라도 나아갔고, 강홍립은 “왜적이 조선의 나와 스직이 위타하여 조모의 잇단 말을 듣고”(국본,11쪽)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덕령과 강홍립은 각각 뛰어난 용력을 발휘하고 왜군을 대파했는데 왜적에 대한 방어를 “천슈”나 “천시”라고 여기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분노를 분출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덕령과 강홍립은 다른 장수에 비해 특히 분노를 많이 느끼는 편이다. 김덕령은 동선령 “에 진주한 왜장 청정이 조선의 미색을 수없이 거느리고 대연을 배설하는 광경을 보자 “분기를 이기지 못하”(정본1,148쪽)는가 하면, 강홍립은 도성이 적에게 함락되자 “분기타발”(정본2,75쪽)하고 적이 전주를 쳐서 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기충천”(정본2,76쪽)하는데, 이것은 사소한 예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 도처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런 분노는 그대로 가라앉는 법이 없고 언제나 적을 무찌르는 힘으로 이어진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솟구치는 것인데, 분노가 강하고 그 빈도가 높을수록 힘도 상대적으로 비례한다. 다분히 충동적이고 기질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충동적이고 기질적이기에 힘이 솟을 수 있고 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김덕령은 모친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홍립은 앞을 가로막는 大海를 단숨에 건너게 되는데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토정이나 정충남에게는 분노하는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김덕령과 강홍립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여송은 조선 병란이 “천슈”라고 하는 쪽과 왜적을 방어하는 것이 “천의”라고 하는 쪽의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천수나 천의가 다를 바 없음에도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천명관이 일정하지

11) 어느 異本에서든지 이여송이 무술시험을 개최한 뒤 능력에 따라 선봉장, 후봉장을 결정한다. 반드시 선봉장은 김응서이고 후봉장은 강홍립으로 나타난다.

못한 데서 비롯한다. 조선 병란이 천수라는 쪽은 이여송에게만은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다. 명나라의 천자, 조선의 임금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상층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이여송의 이런 시각은 상층인의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전란의 상황이 그만큼 조선에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여송이 國外者인 점을 감안하면 조선에 출병하기를 꺼리는 나머지 일반적인 의식을 빌미로 삼는 것도 그 이유일 터이다. 임진록 몇몇 이본¹²⁾에서는 이여송이 흉노족을 무찌르고 있는 동안 천자로부터 조선 출병을 명령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이여송의 거부반응은 거의 신경질적이다.

원슈 복형 사비하고 교서를 바다보고 발언 불열왕 장외외에 군령도 무소불슈라 하고 직시 포를 올니니라 거 포에 쏘였서되 신이 촌은을 바다 삼군을 지나리고 북적을 칠시 임디 책중흔지라 수차 싸움에 적장을 무수히 베히고 비게로써 선봉장 굴솔통을 잡고 시랑길을 쏜어 통니쳐 못하고 적진을 위위싸 자진키 되오미 거 흥복함이 조석에 잇사오니 엇지 잇쳐를 일허리요 비록 황명이 음중하오나 교서를 봉형치 못하리로스이다 조선 국정지도가 가금하오나 엇지 기는 툇기를 바리고 닛는 범을 썩러리요(택본, 46쪽)

흉노를 정벌하고 대공을 세울 순간에 먼 異邦에 원병장으로 출전하게 되면 눈앞의 공을 놓치는 것과 같다. 이미 세력이 꺾인 쪽이 흉노라면 한창 세력을 얻고 있는 쪽이 일본이다. 그래서 “기논 툇기를 바리고 닛는 범을 썩”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조선 병란이 “천슈”라는 것은 순전히 핑계일 수 있다. 무슨 일에서든지 공을 세우기에 급급한 이여송인 만큼 참으로 조선 병란이 팔 년 동안 지속될 줄 알았다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출병치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마침내 조선에 나아간 것을 보면 병란은 천수가 아니거나 이여송이 천수를 짚어볼 줄 모른다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어느 쪽인지는 문면을 통해 알 수 없지만 조선에 대한 이

12) 「高麗大本」, 「權寧徹本」, 「택본」

여송의 천명관이 소극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소극적이던 천명관이 왜 적극적인 천명관으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여송의 적극적인 천명관은 어느 이본에서나 한결같이 왜장을 사로잡을 때 나타난다. 포로가 된 왜장이 이여송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는데, 이때 이여송은 天意를 모르는 무도한 놈이라고 질타한다. 사시나무 떨듯 하는 왜장과 의기양양한 이여송과의 관계에서 이여송의 발언은 절대적인 힘을 지닌다. 그런데 이여송이 이들 왜장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도선의 영웅호걸리 구름 모이듯 하여 너의 디장 청정과 소섭 평숙일 등이 칼아리 혼빚이 되”(나본, 48쪽)었다는 데서 드러나듯 조선장수가 전력을 다한 끝에 이룩한 전과였다. 청정의 위세를 제일 먼저 꺾은 장수는 김덕령이고 청정을 죽인 장수는 김응서이다. 소섭을 죽인 장수는 이본에 따라 김덕령이나 김응서로 나타나지만 이 또한 조선장수이고 평수길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운 장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극적인 천명관을 가졌던 이여송이 적극적인 천명관으로 바뀐 것은 승승장구하는 조선장수와 함세한 다음부터인 바 승전의 공을 가로막으려는 속셈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¹³⁾ 전황에 따라 바뀌는 이여송의 천명관은 펄이나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니 천명관은 소극적 천명관, 적극적 천명관, 기회주의적 천명관으로 나타난다. 천명관의 양상은 주변환경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다. 주변환경과 적당히 타협한 토정이나 일방적으로 떠밀려나간 정충남의 경우는 소극적 천명관을 가졌고, 주변환경이 어떠한 주체적 의지에 따라 출전한 김덕령과 김응서의 경우는 적극적인 천명관을 가졌고, 나름대로 주체의식은 지니되 주변환경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여송의 경우는 절충적 기회주의적 천명관을 가졌다. 이런 논의는 어디까지나 인물과 환경과의

13) 조선에 출전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던 이여송이 김응서를 본 뒤 저런 장수는 중국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며 功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정본」3, 53쪽. 그때는 이미 김응서가 소섭을 처치한 이후이므로 김응서의 功은 곧 이여송의 功으로 넘어간다.

관계를 염두에 둘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이 관계를 무시하고 보면 패배하니까 소극적 천명관이고 승리하니까 적극적 천명관이라는 도식론에 빠질 우리도 있다. 인물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시각, 태도에 따라 천명관이 결정되는 바 토정, 정충남과 같은 유형은 소극적 천명관을, 김덕령 강홍립과 같은 유형은 적극적 천명관을, 이여송과 같은 유형은 기회주의적 천명관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展開方向

임전록에는 상충인, 하충인, 왜적, 국외자인 이여송이 나름대로 천명을 내세우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천명을 받았다고 자처하기 때문에 천명을 집행하려는 자는 한두 명이 아니다. 천명을 집행하는 자는 하늘이 지정하는 이상적 인물로서 명분과 힘을 동시에 지닌 자가 천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을 전후기로 나누어 본다면 전란 전기에는 명분은 있되 힘이 없거나 힘이 있되 명분이 없는 자가 대부분이고, 전란 후기에 들어서서야 힘만 있던 자가 명분까지 획득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전체의 국면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자가 처음부터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분과 힘을 먼저 갖추는 자가 비로소 천명을 얻게 되는 셈이다. 누가 어떻게 천명을 얻게 되며, 앞에서 살펴본 천명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정, 정충남,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은 왜장과의 관계에서 천명관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여송은 그렇지 못한 편인데 명분과 힘의 작용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여송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토정 : 학식 높은 선생

정충남 : 선전관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 : 농업에 종사하는 인물

어떤 인물이 상충인인지 하충인인지를 우선 알아보기 위해 신분을 암시

하는 부분을 나열해 보았다. 토정의 경우 선생이란 말이 신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층인에게 붙이는 칭호는 아니기 때문에 토정은 적어도 상층인이거나 상층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정충남은 직책이 선전관이니 분명히 상층에 속하고 임금에게 忠을 다하는 것을 보면 상층의식이 철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물이므로 하층인임에 틀림없고 하층신분이 통상적으로 지니는 의식을 가졌을 법하다. 따라서 토정과 정충남은 상층의식을 가졌다고 하겠고,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은 상층의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앞장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토정과 정충남은 소극적 천명관을 지닌 데 비해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은 적극적 천명관을 지녔다. 상층의식을 가진 자는 소극적 천명관을, 하층의식을 가진 자는 적극적 천명관을 지녔다는 논의가 일단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상층인이기에 소극적 천명관을 지닐 수밖에 없고 하층인이기에 적극적 천명관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단정으로 이어질 것은 아니다. 하층의식을 가진 자는 대체로 하층인이지만 상층의식을 가진 자가 언제나 상층인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⁴⁾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상층인이 소극적 천명관을, 하층인이 적극적 천명관을 보이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명분은 내면적 의식을 통해서,¹⁵⁾ 힘은 외면적 행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명분은 힘에 의해서 강해진다면 힘은 명분에 근거를 두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분이 상층인 자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분과 힘이 긴밀한 터이고 신분이 하층인 자는 治世의 대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분과 힘이 긴밀하지 못할 것이다. 상층인의 천명관은 적극

14) 중인제층에 속하는 자 중에서 상층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중인들은 상층에 완전히 편입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층에 속하지도 않는데, 대체적으로 상층지향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5) 名分은 儒家뿐만 아니라 先秦時代 諸子百家 사이에서 통용되던 용어인데, 사회질서와 관련한 인간의 직분이나 행위의 규범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여기서 규범이란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명목이요 정당성을 의미한다.

적이고 하층인의 천명관은 소극적이라는 말까지도 가능하다. 임진록에서는 명분과 힘이 긴밀한 쪽은 상층인이 아니고 하층인이며, 이로 인해 천명관이 적극적인 쪽은 상층인이 아니고 하층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예상이 깨어진다. 상층인과 하층인의 관계를 역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하층인이 우위에 섰던 바가 가리워졌다가 전란의 충격으로 인해 비로소 밝혀졌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하층출신의 장수들은 대체로 전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힘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덕령은 “병서와 육도삼략을 일삼으며 천지조화와 둔술은 천하 미치리”(정본1,145쪽) 없을 정도로 힘을 길렀고, 강홍립 또한 “병서와 육도삼략을 일삼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숭상하고 창법은 한신 핑원의게 지닐”(정본2,175쪽) 정도로 힘을 길렀다. 자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타의 이본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힘을 기르는 하층의 장수들은 산속이나 초야에 은거하며 세상에 나아갈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세상의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강토가 짓밟혀도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않는데, 이것만을 들어 말하면 名利에 초연한 異人의 모습과 같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적절한 때가 오면 언제든지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기 때문에 異人이기는 하되 끝까지 세상을 멀리하는 道家¹⁶⁾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렇다면 하층장수들에 있어서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여기서 밝혀야 할 문제이다. “사람이 다 출세함이 썩어 잊기로 시절을 기다”(택본, 76쪽)인다는 언급을 염두에 둘 때, 하층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적절한 때일 듯하다. 상층인만으로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시점이 바로 그러할 터인데, 이런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층장수가 개전 초기에 바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층인 중에서도 몇몇은 왜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왜국

16) 羅田康順의 3인, 道敎とは 何か, 「道敎」(平河出版社, 1983), 20~25쪽에 상세한 언급이 있다.

의 수상함을 간파하고 울곡이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바 있고, 조현이 왜침에 대비할 것을 상소했으며 최일영 또한 왜침을 분명하게 예언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중에 최일영은 여러 이본에서 두루 나타나는 바 한결같이 전란 직전 선조임금의 夢事를 풀이하고 있다. 임금의 꿈이란 東方로부터 한 여자가 산발을 하고 기장 자루를 머리에 인 채 울며 들어와 대궐 옥계에 내놓으니 팔도에 화광이 충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최일영은 “스람 인 배 화하고 계집 녀 한 주는 왜싸오니 팔도의 왜놈이 불갓치 이러날”(국도, 3쪽) 조짐이라고 했는데, 다분히 破字놀이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왜적의 동태를 직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숨어 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태평성대에 요망한 말로 세상을 요동케 한다고 최일영을 즉시 동래로 유배시키고 만다. 조정의 상하관료들이 꿈풀이 이면에 숨은 뜻을 아예 파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꿈풀이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일영이 유배된 것을 보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정의 자세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울곡, 조현, 최일영의 충언이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지만 상충인의 애국심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이로써 드러난 셈이다. 정치 일선에 있는 상충인으로서 나라의 위기를 소홀이 보지 않았다는 전례가 된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몇몇이 상충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충인은 정세에 어둡고 왜적 앞에 속수무책이다. 순변사 신입은 임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출전¹⁷⁾했지만 敵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탄금대에 배수의 진을 치다가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다.¹⁸⁾ 신입의 패배는 개인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17) 「정본」3, 11쪽을 참고할 만하다. “상이 퇴회하고 군수 십만과 명장 팔십여 원을 주시고 퇴원슈 인신을 봉하고 신원슈 즉시 호적하고 남문 밖계 나와 군수를 증구하고 제장의 쇼임을 다 각각 밋신 훈의 군병을 발송할시 신원슈 철이 마상의 너리 안진이 머리의 순금투구를 쓰고 몸의는 용인갑을 입고 좌슈의 철십 근 장창을 들고 우슈의 팔십 근 방천금을 들어싸이 의지는 양양하고 위풍은 늑늑하다”

불과 몇 일만에도 도성이 함락되고 임금이 몽진하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상충인은 막중한 임무를 지녔음에도 그 역할이 너무나 미약했다. 상충인이 무너지고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비로소 하층의 장수가 출전하게 된다. 하층장수가 등장하는 시점이 그들이 말하는 적절한 때라면, 이 적절한 때는 상충인이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나라를 건지기 위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뛰어들은 만큼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가 정치의 대상일 뿐이다.

네 무도하여 강포만 밋고 천의를 아지 못하니 하늘이 너의른 오늘날 시
업시 결하라 하니 즈로 나와 너 칼을 바드라 혼티 청정이티왈 너난 천시를
모르논도다 티고 천황시 이후로 천팔십 연나라 흥망성쇠 잇는 중 천되가
촉촉 전하나니 그런고로 날을 보니여 조선을 거의 다 앗스더니(북본, 64-65
쪽)

김응서와 왜장 청정이 天命을 두고 서로 다투는 대목이다. 김응서가 청정을 향해 “천의를 모른다고 꾸짖자 청정 또한 김응서에게 “천시”를 모른다고 반박하며 하늘이 자기를 조선에 보냈기에 출정했다고 큰 소리친다. 청정은 바로 선전관 정충남으로 처치한 왜군의 主將이다. 정충남을 처치한 뒤 조선에 있던 천명까지 빼앗았다고 확신하는 처지¹⁹⁾이니 김응서의 말에 조금도 지려하지 않는다. 천명의 소재를 놓고 “서로 싸호는 거동은 진실노 스람은컨니와 귀신도 측양치 못할”(정본1, 66쪽) 판국인데, 결국 김응서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충남이 잃었던 천명까지 되찾아온다. 김응서

18) 申硯은 당초 鳥嶺을 지키려 했으나 李鑑의 敗報를 듣고는 닛을 잃은 채 충주로 물러서고 말았다. 적은 鳥嶺에 伏兵을 있다고 여겨 첩후를 시켜 再三 정찰한 후 伏兵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이곳을 통과했다고 한다. 申硯이 비록 輕銳하여 당대의 명성을 얻기는 했지만 戰略을 세우는 데는 어두웠다고 할 수 있다. 柳成龍, 『徵華錄』卷一 “硯欲保爲嶺 聞鑑敗騰落 還忠州……賊恐有守兵 使人再三謁戲 知無兵 乃歌舞而過云” 참조.

19) “천위”, “천조”, “천도”가 조선에 있다는 정충남을 처치했으나 청정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44장, 49쪽에서 청정이 김응서에게 “도선 팔 연 병난은 천출지지라 천위를 모르고 회복코전 하니 웃지 역천지심이 안이 리요”라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는 어떤 이본에서나 신분이 하층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김응서라면 개인으로서보다는 하층장수 전체의 속성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겠는데, 김응서의 투쟁과 승리는 곧 하층장수 전반의 투쟁과 승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층출신의 장수인 강홍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강홍립과 맞서는 쪽이 왜장이기도 하고 상층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상대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하층장수의 상대자가 왜적뿐만 아니라 상층인까지임을 알 수 있는 바, 하층장수의 힘이 상층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목할 만하다.

목스게 들어가 고왈 지금 일본일 강성하여 조선을 침범하니 그 형세를 당치 못하여 전하계옵서 종묘사직을 발이시고 북으로 피난하시물 아지 못하시나있가 하니 목스 디답지 안이히거날 홍님이 디로하여 눈을 불음쓰고 칼을 들어 싸흘 두달이며 쇼리를 벽녁갓치 하여왈 국록지신이 되여 국가 망국지화를 당하여 몸이 나아가 죽기로써 임금을 도울지니 그디는 군신지의를 물으므로 니 한모만 편코져 하니 이는 반적이라 니 너을 먼저 버혀 성중의 회시하고 임군을 츳즈가 시석을 한가지로 하리라 훈디 목스 디겁하여 썰의 날여 홍님의 손을 잡고왈 니 전장의 되코져 하니 안이라 그디의 충심을 보고져 하미라 실노 장군의 충심이 일어하니 엇지 아름답지 안이하리요 하고(정본2,75-76쪽)

강홍립이 제주 牧使를 찾아가서 출전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는 장면이다. 하층신분이면서도 그 위풍이 너무나 당당하다. 하층인인 자신도 아는 군신 간의 도리를 상층인인 牧使가 모르고 있다고 힐책하다가 급기야 叛賊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한다.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심한 편이지만 상황을 급박하게 인식하는 강홍립의 입장으로서의 목사의 처사가 반적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길 법도 하다. 반적이라고 규정하는 한 죽일 여건도 마련된 셈인데, 이렇게 되자 목사는 살 궁리를 하느라고 체면도 팽개쳐 버린다. 뜰에까지 내려와 강홍립의 손을 잡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지방의 수령이 일개

하충인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하충인의 힘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목사가 강홍립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것²⁰⁾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무엇보다 강홍립은 확고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 “국가 망국지화를 당하여 몸이 나아가 죽기로서 임금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생사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결의가 상충인을 압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김응서가 왜장 청정을 격파하고 강홍립이 제주 목사를 굴복시킨 것은 명분과 힘의 관계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기에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충의 장수가 전란 이전에 힘을 기르기는 했으나 그 힘을 사용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다가 상충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왜란이 도래하면서 비로소 그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하충장수에게 주어진 기회란 왜적을 물리치는 데에만 한정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명분은 얻었으되 제한적 명분이다. 상충인 쪽에서는 하충인이 이런 정도의 명분만 가지더라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으리라고 여길 터이다. 그런데 하충장수는 왜적을 격파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주 목사를 질타하고 굴복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왜적을 물리치는 데만 한정된 명분을 상충인의 영역을 깨뜨리는 데까지 확장한 셈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있었거나 전란을 빌미로 필연성을 가장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하충인이 상충인을 무시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전통적인 명분은 계층과 도덕이라는 이율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²¹⁾ 신분질서나 상하의식에 따라 각각의 분수를 지키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계층적 명분론이라면, 개인이나 집단이 문제에 부딪혀 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도덕적 명분론이

20) 강홍립이 청주성을 탈환한 뒤 제주 목사에게 守城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국본, 13쪽), 강홍립이 제주 목사에게 자신이 왜장 윤충의 목을 베어 올 터이니 그 때를 기다리라고 지시(박본, 47쪽, 정본1, 159쪽)한다. 강홍립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제주 목사는 지시하는 대로 따를 뿐이다.

다. 나라에 평온이 유지되고 정치질서가 견고한 시대에는 도덕적 명분론보다 계층적 명분론이 위세를 떨치기 마련이다.²²⁾ 계층적 명분론은 상하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고 진보적 요구를 억제하는 장치로써 유용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명분론이 지나칠 경우 계층적 명분론에서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비판을 가하고, 그 주체자를 참람에서 반역으로까지 규정하여 징벌을 가하는데, 이렇게 하여 질서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존립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면 계층적 명분론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명분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도덕적 명분론이 상층인에 의해 펼쳐진다면 계층적 명분론에 어긋나지 않을 터이지만, 주체가 하층인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하층인이 도덕적 명분론을 표면화하는 것부터가 계층적 명분론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층인이 등장한 것은 상층인의 요구에 의해서보다는 급박한 상황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다.²³⁾ 하층인이 계층적 명분론에 굳이 억매이지 않게 된 일단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응서와 같이 계층적 명분론에 부합하기도 하고 강홍립과 같이 계층적 명분론에 어긋나기도 한다. 문제는 강홍립으로 대표되는 하층장수가 왜 계층적 명분론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임진록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난다. 하층장수만으로 왜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그나마 총력을 기울이려 해도 상층인의 방해가 따른다는 점이 그것이다. 하층장수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승리해 보았자 국지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고, 상층인은 수수 방관하거나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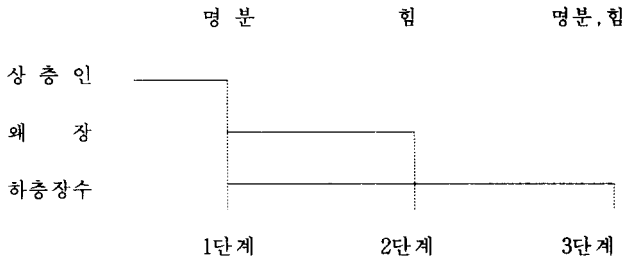
21) 특히 조선시대의 사회구조가 계층질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느 정도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琴章泰, 「儒敎思想의 문제들」, (驪江出版社, 1990), 58쪽 참조.

22) 현실에 비판적이었던 金時習조차도 계층적 명분론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 「梅月堂集」卷二十, 名分說 “天地定名分 聖人修名分 古人史典正名分 不許繁縷違名分也 拘尾續貂則混名分也 狩于河陽傷名分之誤也 候以不義則違名分之實矣”

23) 實錄이나 實記類에서는 義兵이 朝命을 받들어 일어난다고 했지만, 임진록에서의 義兵은 백성들이 도륙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수의 활동을 방해하기 일쑤였는데, 최선의 방법은 하층인과 상층인이 힘을 합치는 길뿐이다. 강홍립이 제주 목사를 굴복시킨 것은 이런 인식의 결과로 보이는 바, 전란을 빌미로 상층인을 제압하려 했다가보다는 전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상층인을 제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평화 시에 상층인이 우위에 있고 하층인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면 전란이 발발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할 터인데 왜 뒤바껴 버리고 마는지 따져볼 만하다. 상층인과 하층인의 주된 특징을 말하자면 상층인은 명분이고 하층인은 힘이다. 전란이 발발하자 하층인은 힘을 바탕으로 명분을 획득 강화한 데 비해, 상층인은 명분을 바탕으로 힘을 획득 강화하지 못했다.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명분과 힘이 모두 필요하다면 명분을 통해 힘을 획득하거나 힘을 통해 명분을 획득하는 일이 다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임진록에는 힘을 통해 명분을 획득하는 길만 열려 있다. 힘은 하층인만이 지닐 수 있고, 힘을 지닌 다음에야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추정이 일단 가능해진다. 이런 추정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임진록에 그럴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등장인물에 의해서는 근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힘을 통해서만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연유를 알아보자면, 명분과 힘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천명관의 흐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진록 이본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명분과 힘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했다. 상충인은 주로 명분을, 왜장은 주로 힘을, 하충장수는 힘에서 시작하여 명분까지를 겸비한다. 상충인의 명분과 하충인의 명분은 성격상 같지 않은 반면에 왜장의 힘과 하충장수의 힘은 오히려 통하는 면이 있다. 상충인은 계층적 명분론이라면 하충장수는 도덕적 명분론을 표방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겠고, 왜장과 하충장수는 상호 기질적인 힘을 위주로 삼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분, 힘, 명분과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구성원 간에 천명을 인식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천명관은 결국 명분을 주로 내세우는 상충인의 천명관, 힘을 주로 내세우는 왜장의 천명관, 명분과 힘을 동시에 내세우는 하충장수의 천명관, 이 세 가지가 되는 셈이다. 세 가지 천명관은 각기 성격이 다르므로 공식적인 면에서 살필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전개되므로 통시적인 면에서 살필 수도 있다. 통시적인 면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려한 구성이기도 하겠기에 천명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때 천명관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3단계로 반드시 나아가도록 짜여 있고,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명분에 대한 힘의 반전, 힘에 대한 힘과 명분의 반전으로 이어진다. 천명관은 반전에 의해 발전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하겠고,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제압해 버리는 생리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상충인, 왜적, 하충장수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천명관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천명을 획득한 쪽은 하충장수뿐이다. 명분과 힘을 모두 갖추어야 천명을 획득할 수 있고 상대를 물리칠 수 있다면 조선인인 이상 명분과 힘을 겸비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충장수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은 하충인이 바로 조선의 주역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힘을 갖추지 못하는 상충인의 무능, 모순을 고발하는 의의도 지닌다. 하충인의 상승을 통해 상충인의 무능, 모순을 고발하는 임진록에는 경험적 현실적 세계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4. 叙事的 機能

하충장수는 전란에 임해서 이전에 준비한 힘을 그대로 발휘하기도 하지만, 미처 준비하지 않은 힘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다. 원래 지니지 않았던 힘이 나타나므로 撞着이라 할 수 있다. 당착이란 역사적 사실과 작품 내적 사실이 상이하거나 작품 서술대목에서 논리적 파란, 불합리성을 보이는 현상을 통칭하는 바²⁴⁾ 임진록에는 당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수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²⁵⁾ 그런데 당착이라고 할 만한 사항 가운데는 성격이 단순하지 않은 것도 있다. 사건이 전개될수록 몇몇 하충장수들의 힘이 상승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힘이 상승하기에 당착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²⁶⁾ 더군다나 논리적 파란, 불합리성이라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당착은 아니다. 당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본다면 의도적 당착과 무의도적 당착이라 하겠는데, 사건이 전개되면서 힘이 점차로 상승하는 현상은 의도적 당착에 해당한다. 의도적 당착에는 힘의 상승을 문제해결의 새로운 단서로 제시하는 담당층의 의식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힘의 상승을 점점하는 일은 곧 담당층의 의식을 살펴보는 의의를 지닐 터이다.

하충장수의 힘이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원래부터 지녔던 힘이 가리워졌다가 사건이 전개되면서 점차로 드러나는 경우

24) 기왕의 논자들은 이런 현상을 誤謬나 矛盾이라고 했다. 오류나 모순이라는 낱말은 先入見이 개입된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필자는 현상 그 자체를 선입견없이 바라보기 위해 撞着이라는 낱말은 사용하고자 한다.

25) 가령 「정본」2를 보더라도 당착이 다수 발견된다. (1) 왜적이 처음 조선을 침공할 때 군병이 80만이었는데, 이순신 단독으로 무찌른 왜병만 해도 80만을 상회한다. (2) 이순신에게 죽은 평행장(49쪽)이 후일 이순신과 다시 대결(51쪽)한다. (3) 전란 초창기에는 왜군측 대원수가 청정이었다가 일본으로 퇴각할 때는 평행장으로 나타난다.

26) 「宣祖修正實錄」卷26, 25년 壬辰6月, “諸道義兵起 時三道帥臣皆失人心 變作之後 督發兵糧 人皆嫉視 遇賊皆潰 及道內巨族名人與儒生等 承朝命 倡義而起 則聞者激動 遠近應募”를 참고해 볼 때, 하충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날아갈수록 그 세가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하충장수들의 힘이 점차로 강해진다고 할 수도 있다.

일 수도 있고, 원래 없었던 힘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생성, 확장하는 경우 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인지는 하층장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판가름할 문제이지 연역적으로 추단할 것이 아니다. 하층장수로는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이 대표될 만하다. 세 인물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힘의 위상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다른 인물의 경우에 비추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세 인물 중 김응서는 어느 이본에서나 하층장수로 등장하며 활약이 두드러진 편이기에 김응서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김응서에 대해서는 「북본」이 비교적 상세하다. 이를 통해 힘과 관련된 대목을 정리하되 해당 쪽수는 괄호 안에 나타낸다.

- 1) 기생의 도움으로 조섭을 죽임 (28-32쪽)
- 2) 청정과 수십 합을 겨룬 끝에 승리함 (64-68쪽)
- 3) 청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쳐들어오는 왜장을 죽임 (76-78쪽)
- 4) 강홍립과 더불어 일본원정을 시도함 (100-113쪽)

1)-4)는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의 쪽수를 보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분량상 간격이 심한 데다 인과관계도 적기 때문에 상호 연결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실제로 적대자가倭라는 점에서만 일치할 뿐 주체자인 김응서는 사건마다 그 면모를 달리하고 있어서 사건의 단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김응서의 면모가 달라지는 것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힘이 상승하는 데서 나오기에 형태적으로는 단절이지언정 의미상으로는 단절이 아니다. 힘이 갈수록 약해지거나 일정해지는 경우도 감안할 수 있는데, 왜 형태적인 단절을 통해 힘을 상승시키는 쪽으로만 나아가는가 관건이다. 조섭보다 청정의 힘이 더 강하고 청정보다는 그 이후 나타나는 왜장들의 힘이 더 강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김응서의 힘도 강해지리라 추측한다면 일단 그럴듯해 보인다. 이런 추측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섭, 청정, 그 이후의 왜장 순으로 힘이 더 강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증거는 형태적인 단절을 통해 힘이 상승

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김응서의 힘이 점차로 상승하는 현상은 여타의 이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논지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1)	2)	3)	4)
국본	+		+	+
박본	+	+		+
정본1	+	+		+
정본2	+	+		+
정본3	+	+	+	+
경본	+	+		+
나본	+		+	+
택본	+		+	+

1), 4)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 2), 3)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2), 3)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종뿐이지만, 2), 3)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복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사건이 전개될수록 김응서의 힘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모든 이본이 일치한다. 김응서는 원래 가진 “심이 능히 삼천 군을 들고 금술이 조지룡의게 비”(정본3, 32-33쪽)할 정도이지만 최초로 왜장 조섭과 상대할 때는 힘이 부족해서 기생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했다. 연광정의 방울이 울리지 않도록 한단든지 조섭의 명천검을 진정시킨단든지 목없는 시체가 요동할 때 재를 뿌린단든지 하는 것이 모두 기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기생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만고 영웅이요 또 몸이 무쇠갓고 둔갑술법이 귀신갓든”(정본2, 36쪽) 조섭을 처치하지 못했을 터이다. 한 치의 여유도 없던 김응서가 2), 3), 4)에서는 타인의 도움없이도 조섭못지 않은 힘을 지닌 왜장들을 거뜬히 죽여 없앤다. 원래 지닌 힘으로는 1)에서 조섭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던 김응서가 2), 3)을 거쳐 4)에 이르러서는 “우뢰갓치 소리 질으며 달나들어 적장의 칼을 잡고 공중의 소스올나 두 장수의 말이

을 쳐 싸의 날여치”(정본2,103-104쪽)기까지 했으니 1)과 4)는 같은 인물에서 나왔다고 하기 어렵게 되었다.

김응서 자체를 보아서는 힘이 상승하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 상대하는 왜장이 강해지기에 김응서의 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우선 조섭보다는 청정이 더 강하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정은 조섭과 평수길이 김응서에게 패사했다는 말을 듣고 “두 장수를 밋고 억조창싱을 다리고 왔다”(정본3,59쪽)고 탄식했는데²⁷⁾ 청정이 조섭과 평수길을 의지했다는 것으로 보아 조섭이나 평수길이 청정보다 더 강하다는 추측조차 가능하다. 왜장의 힘이 점차로 강해지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형태적인 단절을 통해 힘이 상승하는 까닭도 역시 찾아낼 수 없다. 김응서 자체로는 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된 이상 사건과 사건의 사이를 주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1)과 2), 2)와 3), 3)과 4)의 사이에는 김응서가 아닌 다른 장수가 출전해서 싸우며 김응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김응서의 측면에서는 이 간격이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 힘의 상승을 고려할 때 공백기는 김응서의 힘이 충진되고 새롭게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공백기는 김응서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생겨난 힘도 김응서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덕령, 강홍립의 경우도 공백기가 겹치면서 힘이 상승하고 있어 김응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김응서뿐만 아니라 김덕령, 강홍립의 공백기를 통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백기가 바로 인물의 힘을 상승시키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김덕령과 강홍립, 김덕령과 김응서, 강홍립과 김응서가 거의 겹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응서가 등장할 때는 김덕령이나 강홍립이 등장하지 않고 김덕령이나 강홍립이 등장할

27) 「정본」2에서는 “당초 괴병할 제 쇼섭만 밋고 이곳의 와 조선을 거의 다 아스더니 불헝ㅎ여 이제 쇼섭이 죽어스니 이는 하늘이 돕지 안이ㅎ미요 울이 일본이 불헝ㅎ미로다”(83쪽) 하며 대성통곡한다.

때는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 아니한다. 김응서와 강홍립은 경우에 따라 활동작전을 펼치기도 하나 이 때에도 싸우는 상대가 구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개인의 공백기란 다른 인물이 활약할 때이고 한 인물이 활약할 때 다른 인물에게서 공백기가 생겨난다. 임진록은 공백기의 집합체이고, 공백기의 집합체이기에 전체적으로 힘의 강도가 높아가는 국면을 보여준다. 공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물의 힘이 언제나 상승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전체적인 국면이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인물의 힘이 일방적으로 상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가령 김응서, 강홍립은 어떤 이본에서나 하층신분에 속하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힘이 상승하지만, 김덕령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김덕령은 이본에 따라 하층신분에 속하기도 하고 상층신분에 속하기도 하는데, 상층신분일 때는 말할 필요가 없고 하층신분일 때도 힘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²⁸⁾

하층신분일 때의 김덕령은 지닌 힘에 있어서는 강하지만 이 힘을 발휘하는 데는 적지않은 장애를 느낀다. 임금을 위해 나가싸워야 한다는 忠과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孝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느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 결국 忠을 택하고 전장에 나아가게 되나 孝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야 했다. 이런 갈등이 하층인이기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다같은 하층인인데도 김응서는 충과 효 사이에서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다. 집안이 빈한하고 흠어비를 모시는 처지인지라 출전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며²⁹⁾ 출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어머니의 말대로 충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김응서이니만큼 갈등이 애초부터 생길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김응서는 갈등을 겪지 않았기에 힘이

28) 辛泰洙, 郭再祐傳承 樣相과 意味, 『文學研究』4, (東都商社, 1986), 268-269쪽 참조.

29) 응서와 그 어머니의 대화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서 아로되 몸이 궤인이요 ㅎ물며 모친 슬ㅎ의 씨나옴 황송ㅎ와 주저ㅎ웁난이다 부인이 티질 왓 너 나을 위ㅎ고 임군이 도적의 환을 당ㅎ웁시고 피란ㅎ신의 못지 구치 안이ㅎ난다 뱃비 가라” (박본, 30쪽)

상승할 수 있었고, 같은 논리에서 김덕령은 갈등을 겪었기에 힘이 상승하지를 못한 것이다. 공백기는 김응서와 김덕령에게 모두 나타나지만, 김덕령에 있어서는 이 공백기가 힘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원래 지닌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공백기가 주어졌더라도 심리적 갈등을 겪기만 하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인물이 갈등을 겪기만 하면 좌절하고 만다는 사실은 공백기의 의의를 가늠하는 단서일 수 있다. 공백기는 인물의 힘을 상승시키는 데 유용하지만 인물에 갈등이 있을 경우 전혀 기능하지 못했다. 그 의의가 제한적인 듯이 보이기도 하나 임진록에서 경계하는 것이 갈등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백기의 의의를 약화시켰다는 편이 오히려 타당할 터이다. 임진록에서 갈등이 왜 이처럼 부정적으로 나타나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임진록이 항상 급박한 전투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진 힘을 모두 발휘해도 이기기 어려운 전투에서 개인의 문제란 배격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관점에서 김덕령의 경우를 되짚어보면, 김덕령은 충과 효라는 윤리적 갈등으로 인해 나아가고 머무르는 것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었다. 충효이념을 배제한 계층적 명분론과 개인과 집단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명분론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만약 김덕령이 계층적 명분이나 도덕적 명분 중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택했더라면 갈등을 겪고 좌절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다.³⁰⁾

일반적으로 김덕령이 겪는 명분의 갈등 정도는 있기 마련이라는 입장에

30) 등장인물이 자기갈등에 빠져 뚜렷한 主觀을 갖지 못할 때 끝내 좌절하고 마는 현상은 楊州山臺, 鳳山탈춤과 같은 민속극에서도 발견된다. 목중이 중이고자 하는 측면과 중 아니고자 하는 측면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자 양주산대에서는 연잎, 눈썹적이자, 봉산탈춤에서는 사지가 출현하여 정벌을 가하는데, 이런 장면은 임진록의 김덕령이 갈등을 겪으면서 좌절하는 대목과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235-237쪽 참조.

서면 김덕령의 경우는 쉽사리 수궁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임진록에서 핵심인물 중의 한 명인 김덕령이 이 정도이니 이상적 인물형이란 내적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여타의 작품을 보는 시각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겠는데, 바로 이 점이 임진록만이 가지는 특징이요 담당층의 의식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임진록의 담당층은 원래 지닌 힘이 강하더라도 확고한 명분을 지니지 못한 인물이라면 전란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김덕령이라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보면 강력한 힘과 확고한 명분을 지닌 장수가 가장 이상적인 인물형인 셈이다. 이상적인 인물형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공백기를 통하여 힘을 충전하고 새로운 힘을 준비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면모를 바꾸어 간다. 공백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힘을 상승시키기 위해 담당층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장치이다.³¹⁾ 담당층은 공백기를 설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물의 갈등에 의해 공백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 주었다. 내면적 갈등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힘을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려고 했을 터이다.

요컨대 임진록의 담당층은 개인과 집단의 힘을 상승시키기 위해 공백기를 설정했지만, 갈등의 해악을 경계하기 위해 공백기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했다. 공백기가 설정된 연유를 간과해 버리면 인물의 힘이 별다른 연유없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당착이라 하겠으나 공백기를 작품에 설정된 장치로 인식할 때 당착이되 의도적 당착이며 힘을 문제해결의 단서로 제시하는 담당층의 의도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담당층이 힘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힘을 상승국면으로 이끄는 것이 도덕적 명분임을 제시하면서 명분 또한 문제해결의 단서임을 밝혔다. 이미 앞장에서 살펴

31) 담당층의 의식이 과연 집단의 힘을 강조하는 데까지 이르렀겠는가 하는 반론도 제기될 법하다. 공백기라는 구성으로 인해 집단의 힘이 부각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보면 담당층의 의도이든 아니든 간에 공백기의 기능은 담당층의 몫이며 결과적으로 강조되는 집단의 힘도 담당층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에 의하면 힘과 명분은 강력한 천명관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볼 때 임진록의 담당층은 명분과 힘을 바탕으로 한 천명관이 사건의 전개방향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전환시킨다는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5. 結 論

지금까지 임진록에 나타난 天意, 天數, 天時, 天命, 天道라는 낱말을 통해 天命觀의 성격과 기능을 알아 보았다. 天命觀이 반영된 일련의 낱말은 경우에 따라 그 무게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상투어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天命이라면 儒敎的 天命이고 유교적 천명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했을 뿐 천명이 다양한 시각에 의해 해석되는 현상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유교적 천명이 임진록에서 여러 모로 굴절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임진록에 나타나는 天命觀의 양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구조를 파악한 다음, 천명관이 사건전개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록에서는 天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天은 형체적인 天과 주체적인 天으로 나누어지는데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주체적인 天이 부각되고 지배층이 天을 치국이념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와 연결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임진록에서도 나타나고 있기에 유교적 천명관이 반영되었다고 하겠으나 등장인물 간에 천명을 놓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조선의 상층인과 하층인이 주장하는 천명이 다르고 왜장이 주장하는 천명이 다르기 때문에 임진록은 여러 인물이 천명의 행방을 다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물과 환경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천명관의 양상은 소극적 천명관, 적극적 천명관, 기회주의적 천명관으로 나타난다. 주변환경에 적당

히 타협하거나 일방적으로 떠밀려 나간 인물의 경우는 소극적 천명관을, 주변환경이 어떠한 주체적 의지에 의해 출전한 인물의 경우는 적극적 천명관을, 나름대로 주체의식은 지니되 주변환경과 적당히 타협하는 인물의 경우는 기회주의적 천명관을 지녔다. 이런 논의는 토정, 정충남, 김덕령, 김응서, 강홍립, 이어송을 대상으로 해서 도출된 것이지만 이들 인물이 중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진록 전체의 인물 유형을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터이다.

셋째, 천명관은 명분을 주로 내세우는 상충인의 천명관, 힘을 주로 내세우는 왜장의 천명관, 명분과 힘을 동시에 내세우는 하충인의 천명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천명관은 공시적인 면에서나 통시적인 면에서 고찰될 수 있겠는데, 통시적인 면에서 볼 때 천명관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명분에 대한 힘의 반전, 힘에 대한 힘과 명분의 반전으로 이어진다. 천명관은 반전에 의해 발전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하겠고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제압해 버리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충장수의 힘과 명분이 궁극적으로 강력한 천명관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아 하충인이 전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선인이라면 어느 계층이든지 지닐 법한 이런 천명관을 상충인이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

넷째, 임진록의 담당층은 인물의 힘을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서로 제시하고 있다. 힘이 강력해야 왜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경험적 인식이 힘을 상승시키는 장치인 공백기를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공백기가 반복될 때마다 한 인물의 행위는 끊어지되 다른 인물의 행위가 이입 교차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힘도 상승하게 되는데, 담당층은 개인과 집단의 힘이 모두 긴요함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힘을 상승시키는 장치인 공백기도 인물의 갈등이 나타나면 별 다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로 보아 담당층은 자신이 설정한 장치를 허물어트리면서까지 갈등의 해악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했을 법하다. 임진록에서 인물의 갈등을 겪는다면 곧 천명관이 미약하다는 의미가 되는 바 승리의 역사를 지향하는 전체의

흐름에 한갓 장애요인일 뿐이다. 갈등을 겪는 인물을 과감히 정치함으로써 강력한 천명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작가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원리요 독자의 요청이기도 하다.